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형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03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1월 15일(음력 9월 25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걱정없이 활달하고 자유스럽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또 하나는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던 조상,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본은 첫째, 불성을 말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도를 시키면 활짝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죠. 스님마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천지를 다 간파하고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간파해서, 정말 쿨구멍 없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또 쿨구멍 있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작용의 에너지가 광력을 이루듯이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모두 이렇게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산 사람 영혼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천도를 하면 좀더 마음이 완화되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맴고 돌아가니까 조상들의 마음도 한마음으로 맴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영가들도 마음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가 없이 딱 거기에 안착이 되니까 전부 알겠거든요. 아니까 그때서야 편안한 감을 가지고, 거기서 끌려 나가서 천도가 돼도 거기서 미리 알고 갔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말 '무(無)'와 '유(有)'의 세상을 잘 알고 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염불할 때도 영가들은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알니다.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왜냐? 스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사다가 차려 놨다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것만 알고 갑니다. 그러나 지금 천도를 시키는 스님이, 이 우주 전체를 섭렵하고 타파할 줄 아는 그런 스님이 딱 열고 할 때는 전부 이 세상의 모퉁이 딱 하나도 먹고선 천도가 되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든가, 마음으로서 수천수만을 거느리고서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 딱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 하는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하나가요.

상대성 원리의 작용이라는 것이 인연줄에 따라서 나쁘게 약으로 가느냐, 인연줄에 따라서 선으로 가느냐,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 시키는 스님네들도 이 도리를 알고, 지내는 사람도 이 도리를 알고 해야만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기까지 공력이 주어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서 천도를 하신다면 세상에 복은 빛을 갈을 수 있고 햇빛을 줄 수 있고, 너무나 자기를 밝게 할 수 있고 밝게 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공덕입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 저도 아직 그 도리를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전생에서 지금 온 것이라고 볼 때 저도 두 집 살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저도 모르면서 제 조상을, 지금 내 먼저 자손을 괴롭히고 있는 지도 모르니 하루속히 이 도리를 알아야지...

▲큰스님: 생각을 말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좁다랗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좀더 넓게 놓고 가세요.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없어요. 업도 불을 지리개 없고 병고도 불을 지리개 없고, 액년도 불을 지리개 없고 세균도 불을 지리개 없고, 유전도 불을 지리개 없고 업보도 불을 지리개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 내 마음은 체가 없이 둥글고 쉼 사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큰스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걸 맡겨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경계마다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겨 가면서 맡긴다는 사이 없이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그 동안 건건이 나타나는 경계를 주인공에게 맡겨 가면서 그것이 또 관(觀)한다는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 생활 속에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니까 저의 힘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속에 큰 어려움이 저서 풀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낱알이 오는 그런 경계인 줄은 압니다마는,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그 낱알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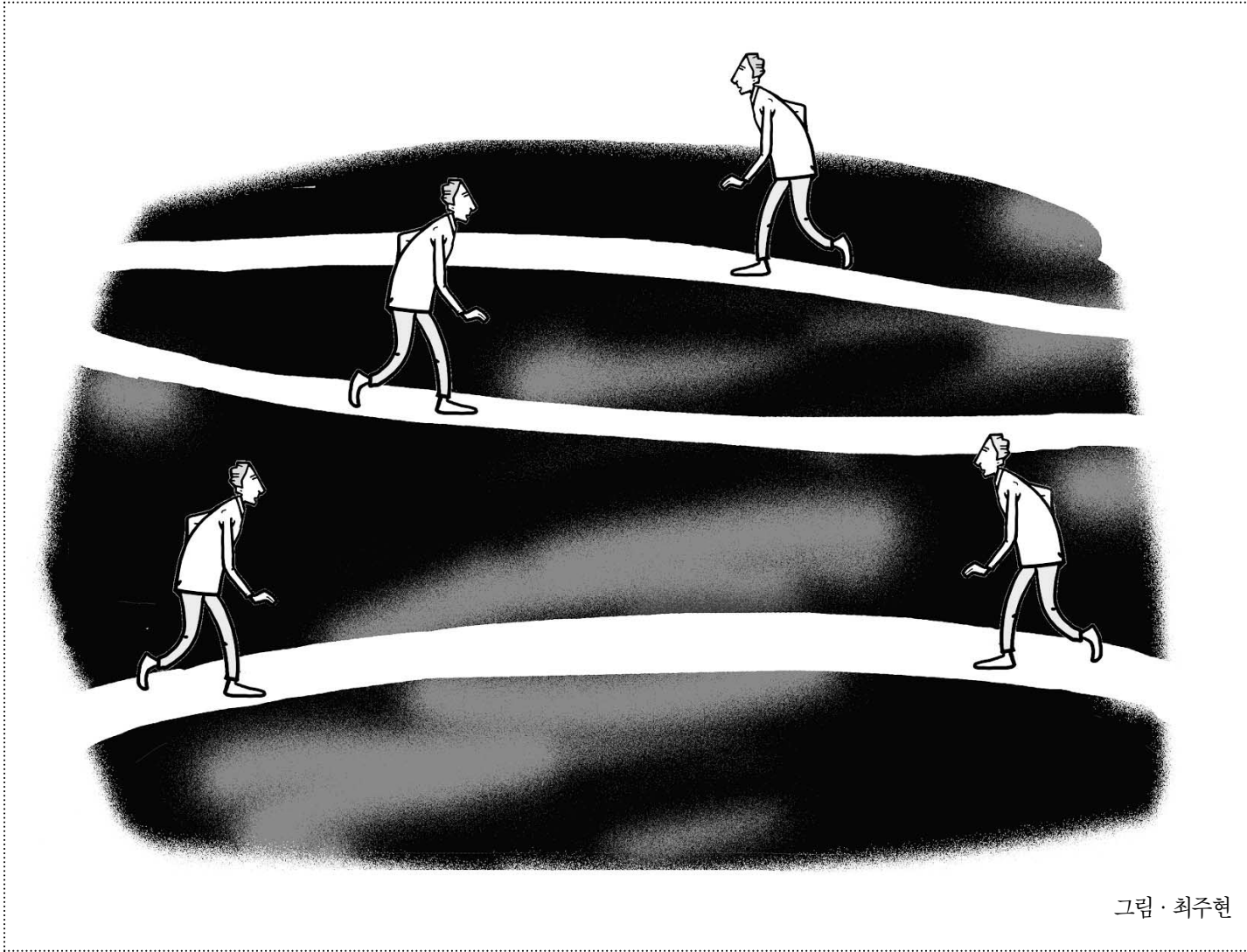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은 체가 없이 둥글고 쉼 사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에 과거도 없고 업도 병고도 불을 지리개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다가 보면, 몰아서 닦치는 것도 닦이 공부하는 데에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작은 거나 큰 거나 엄청 많은 거나 풀이 아닙니다.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닦도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타났든, 용도에 따라서 그냥 쪽 오든, 하나가 오든 쪽그만 게 오든 그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구,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이러는구나. 팔죽 속에서 팔죽이 끊어서 팔죽 방울이 온갖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자3(남): 하나요?

▲큰스님: 네, 하나요. 그러니까 다 풀었으면 볼만 끄면 금방 아닙니다? 허허허... 그런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니까? 짐승 몸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살던 습이 있겠지만, 인간으로 돼 가지고는 정신을 뺏기느냐 헛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신을요. 지금은 정신을 뺏어 먹는 시대가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야 안 뺏기고, 알아야 모두 끌리죠.

엇저게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차갈이,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양면이 다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도 생각 없고, 가서 죽는 것도 생각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가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서 오는 것도 생각해야 이것이 펀트가 맞지 않죠. 그래서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니다. 정신계와 육신이 둘이 아니다. 동쪽과 서쪽이 둘이 아니다. 넓게 본다면 여자와 남자가 둘이 아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 아닌 나'와 지금 '현상의 나'가 바로 같이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법을 굴릴 수 있고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들고 낼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 못한다면... 그래서 '나 아닌 나'는 부(父)라고 하고 지금 현상의 '나'는 자(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의 상봉을 해야 작용을 하고 이끌어 간다 이겁니다.

몇 달 됐지만은 L.A.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 있는 박사나 그 외에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받으려고 논문을 쓰고 있는 생활학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뭐, 많은 분야의 사람들한테서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해 주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아래 위가 딱 맞게 그냥 그 논문이 잘 써지더라는 거죠.

하버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녁이 아침이 아침이 저녁이다, 저녁과 아침이, 24시간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났다 이러더라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맞붙어 버린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오늘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삼천 년 전도 오늘날입니다. 오늘도 화(化)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참나 참나 나오는 대로 작용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을 하러 나갔습니다. 탁발을 하면서 성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은사가 생긴 그러지 않더니 아주 슬픈 내색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프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여직껏 은사 스님을 모셔왔어도 우시는 일이 없고 슬퍼하시는 일이 없었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 이따가 얘기하마.' 그리고 가시거든요.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서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릴 듣고선 아니, 화창하게 웃으시더라 이겁니다. 아주 화창하게 웃으시니까 '아니, 또 웃으시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생전 울고 웃는 것을 못 봤는데 아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때, 가서 얘기하마." 그러면서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 공양을 하고 나서 아까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여쭙 봤습니다. 여쭙 보니까 급제, 성문 바깥으로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말라 빠들어진 귀신이, 즉 말하자면 어귀가 없어서 있다가 그 스님을 보더니 달려들어서 매달리며 살려 달라고

30면으로 계속